

## 교회소식

### ◆ 광고

-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예산:1,200만원)
- 오늘 2부 예배후 정기당회 모임입니다.
-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기도온찬양대입니다.(연습 2시, 소망관)
- 연합여전도회 주관으로 7월 1일(화) 도곡기도원에 갑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①일시 : 2014년 8월 4일(월)~6일(수) 2박 3일 ②장소 : 안면도청소년수련원  
③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④전교인수련회 상행시 짓기대회가 오늘 마감이니 오후예배시 까지 제출바랍니다.  
⑤수련회비는 김금분 전도사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⑥전교인수련회 실행팀장 모임이 오후예배후 남전도실에서 있습니다.
- 신일 한마음 기관별 성가합창대회 ①일시 : 7월 20일 오후예배시간  
② 각 기관(전도회,교육기관)들은 열심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참가비는 정기훈 강도사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6월 30일까지 연합여전도회에서 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헌미통은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신소자,송경순,양문주,김순자,조남년

### ※교회 기도제목

- 진행위원, 강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한마음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위에 풍성하게 하소서.
- 모든 기관들위에 준비하는 모든 일정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2남전도회	여17, 18목장	제7여전도회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 7월 행사

- 6일 : 맥추감사주일, 신일비전현신예배 • 13일 : 각 기관 월례회
- 20일 : 제3남 4여전도회 현신예배,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27일 : 정기당회

◆ 7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7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역, 이진석, 곽복남, 이정자

##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 다같이  
새42장(구11장)  
새276장(구334장)  
주는 평화

기 도 ..... 1부/우성한 장로  
2부/박근용 장로

성경말씀 ..... 인도자

빌립보서 4:4~7 (신 P322)

찬 양 .....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기 도 ..... 설교자

찬 송 · 새410장(구 468장) ... 다같이

헌 금 ..... 다같이

감사와 축복 ..... 인도자

♣ 찬 송 ..... 주기도문송 ..... 다같이

♣ 축 도 ..... 담임목사

광 고 .....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안재경 장로  
2부 / 남동균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 사  
설교 김 금 분 전도사

예배선언 .....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 김준열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시편 13:1~6(구 P810)

찬 양 ..... 기도온 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슬픈 탄식변하여 기쁨의 노래로

찬 양 ... 새370장(구455장) ... 다같이

광고/축도 ..... 인도자

✚ 다음주 기도/ 김진승 집사

##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목 도 ..... 다같이

찬 송 ... 새393장(구447장) ... 다같이

기 도 ..... 임희자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마태복음 6:9~13(신 P8)

말씀선포 ..... 설교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목장찬양 ..... 여17, 18 목장

축 도 .....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 1, 2 목장

✚ 다음주 기도 / 박상임 집사

Since. 1978

No 26. 2014. 6. 29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 초 대 합 니 다

### 1.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 2.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 벽 기 도 회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덕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눌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3.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4.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 향기로운예물

### ✦ 십일조헌금

강보라, 강일창(고속자), 강철원(이지영), 강혜성(김성원), 김경탁(김나경), 김명숙, 김선화, 남영순, 남정아, 박유연, 박은정, 박희난, 안경환(송명남), 안재경(정은숙),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이동근(박영숙), 이선환, 임웅천(정분희), 정연주, 무명 2

###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경탁(김나경),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명숙, 김연태, 김재홍(한영자), 김제근(한영실),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마주성(김선영), 박남수,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해진, 성형건(윤송희), 소재역(김미화), 안재경(장은숙), 안주오(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원용국(김복국), 이도화, 임웅천(정분희), 정옥근(이경미), 정재만, 최사무엘(서남지), 함돈수(곽정자), 무명

### ✦ 선교헌금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강혜성(김성원), 김명권(정영주), 김명숙, 김영순A, 김진승(윤라미), 박근웅(최윤자), 양문주(권유순), 이은화, 이진석(윤혜진), 임웅천(정분희),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김성원), 김건국(성옥/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박유연, 안스디자민, 안영원(영인/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윤),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다희), 장은숙(소연/진형/진성)

###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 이은화, 무명

### ✦ 목적헌금

김종남

###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 목장현황

2014. 6. 16~6. 22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3	18,000	10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정분희	3	6,000	7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3	11,000		교 회		6 고속자	정분희	2	5,000	49	교 회
남2초원	3 박근웅	교 회	1	5,000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1	10,000	13	교 회
	4 김명권	교 회	1	5,000	20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0,000	7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57	교 회	여5초원	9 구남량	교 회	4	12,000	25	교 회
	6 안재경	교 회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4	9,000	3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5,00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15	교 회
	8 박순국	교 회	4	7,000	5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3	10,000	83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3,000	6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2		52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10,000	2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4	18,000	95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3	10,000	21	교 회
	2 김명숙	교 회	3	10,000	65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5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30	교 회	여9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3,000	30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13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3	8,000	23	교 회

## 금주의 말씀

###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빌립보서 4:4~7

오늘 본문7절에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행복의 요소가 되는 참된 평안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 1.주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기쁨은 빌립보서의 짧은 네 장으로서 총 104절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나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고향의 품속한 처대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루대가 지키는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에서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 아니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했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도 이처럼 기뻐하고 또 감옥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 되었다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평생 갇히고 갇을 수 없는 빛을 탐감 받은 사람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 2.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짜우사니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용’ 이란 단어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인내’ 를 뜻하기도 하고 시편 86:5절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된’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는 말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의반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관용을 베풀라’ 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싸움’ 이 있었는데 아마도 빌립보 지방에 거주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들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게 대할 때에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에는 관용적인 태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는 말이 주의 뜻인 줄은 알면서도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관용을 실천하지 못할 이상이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본질은 긍휼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으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 있을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끔찍한 고통과 싸움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였습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주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짜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풀어 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손해 주고 손해 받던 모든 인간관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았던 고통과 모든 상처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 3.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염려거리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염려’ 라는 단어는 본래 “마음을 나눈다” 는 뜻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표류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염려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적 처방이 기도입니다.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냥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염려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민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마음과 생각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쉽게 지치고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찬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마음의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감사야말로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처방입니다.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아 보이는 사건 속에서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는 말은 ‘호위하다’ 라는 뜻의 근대 용어입니다.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파수꾼을 보내셔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의미심을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 화나는 일이 생키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사단이 평안을 빼앗고자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